

‘동병상련’ 단원고 유족들 다시 진도로

“바닷속 남은 아이들도 내 자식... 아픔 함께 나누고파”
20여명 장례 치르고 돌아와 동료 실종자 가족들 위로

“내 자식 장례만 먼저 치러 죄송합니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도 하루 빨리 자녀들을 찾아야 하는데... 죄송스런 마음에 장례 치르고 곧장 달려왔습니다.”
침몰한 세월호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자녀를 보낸 유족들이 다시 진도 팽목항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고 이후 13일이 되도록 보고싶은 가족을 만나지 못한 다른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다.
이미 장례 절차를 마친 유족들은 지난 23일 부터 이날까지 꾸준히 수백km 떨어진 진도와 경기도 안산시를 분주히 오가며 다른 실종자 가족들의 든든한 동료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을 찾지 못한 채 고통스런 하루하루를 보냈던 만큼 이들이 건네는 위로는 진도 실내 체육관과 팽목항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아삭하기만 한 하루를 버티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유족 김영대씨는 28일 “내 아이 먼 하늘나라로 보낸 뒤 아직 가족 시신도 못 찾아낸 다른 학부모 생각을 하니 울라, 죄송함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김씨가 사흘 전 장례를 마치고 다시 진도를 찾은 이유다.
그는 “옆에서 힘내라고, 버티내라고 한 마디 해주는 것 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생때같은 자식을 찾지 못해 부둥켜안고 울었던 슬픔을 함께 나누면 조금 더 가벼워질 것 같았다고 했다.

김씨 뿐 아니다. 가족 장례를 치른 뒤에도, 평생 못볼 것 같은 ‘자식 삼켜버린’ 진도 앞 바다를 다시 찾는 유족들만 20명이 넘는다.
이성철씨도 이날 아들의 삼우제를 마치고 다시 팽목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씨는 “내 아이뿐 아니라 바닷속에 갇혀 있는 남은 학생들도 내 자식 아니겠냐”고 했다.
이씨는 “아직 100명이 넘는 학부모가 애 타게 자식 얼굴 볼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내 아이뿐 아니라 바닷속에 갇혀 있는 남은 학생들도 내 자식 아니겠냐”고 했다.
그는 “침몰한 배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왜 살아오지 못했는지, 여태껏 차디찬 바다 속에서 갇혀있는 학생들은 언제 물로 꺼내올 것인지 함께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도 말했다.
지난 27일 삼우제를 마친 김병권씨도 조만간 팽목항을 다시 찾는다. 그는 지난 21일 아들 시신을 찾았다. 김씨는 “내 자식만 먼저 찾아 남은 분들께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여태껏 자식 닮은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부모의 마음을 내가 이는데 내 자식 장례 치렀다고 안산에서 모른 척 할 수 있느냐”고 했다.
한편, 장례를 마친 안산 단원고 학부모 20여명은 29~30일 진도군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돕고, 정부당국에 조속한 구조작업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영호기자 khh@kwangju.co.kr



숨죽인 흐느낌 세월호 침몰 13일째인 28일 진도군 조도면 팽목항을 찾은 자원봉사자들이 사고해역을 바라보던 중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얼굴을 가린 채 숨죽여 흐느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떠나가면 안 돼”...시신 유실 방지 전담반 구성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하는 등 대응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키로 했다. ‘희생자 유실 방지 TF’에는 해경과 경찰(육경), 육군,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28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8km 가량을 ‘작전구역’으로 정하고 구조·수색작업과 동시에 시신 유실 방지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가 물살이 빠른 사리 때로, 수습되지 못한 실종자가 유실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고 지점에서 동남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 어민들이 기존에 설치해놓은 5km 폭의 닻자방 그물을 활용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사고 해역으로부터 8km~15km 떨어진 구간에는 지난 19일부터 쌍끌이 어선 8척이 수색을 하고 있다.
또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3척이 사고해역 외곽 신안 가거도와 추자도 해역(40km~60km)을 수색하고 있다.
혹시 패내려갔을지도 모르는 시신의 이동 방향 예측을 위해 위성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표류부이’도 사고 해역에 투입키로 했다. 28~30일 사이는 지난 16일 사고 발생 당일과 비슷한 조류 상황으로 물살이 거센 사리 때다. 표류부이는 해수면에 떠다니며 풍향과 풍속, 기온, 기압, 해수온도, 위치, 표층류 등을 관측할 수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탑승 476명	구조 174명
실종 113명	사망 189명
※ 28일 오후 8시 현재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시장 공천 권한 안철수 대표에 위임

새정치연합, 안대표 “조만간 최종 입장 밝히겠다”

전략공천 여부 주목

따라서 광주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당의 최종 입장이 안 대표의 입을 통해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안 대표가 고심해온 광주시장 전략공천을 추진하느냐 여부다.
윤장현 후보를 지지했던 광주지역 국회의원 등 5명은 지속적으로 두 대표에게 전략공천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열세인 “안철수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호남에서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광주의 일부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원로들이 전략공천 반대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하고 있으며 강운태 시장과 이응섭 의원은 탈당의 배수진을 치면서까지 전략공천을 지지할 태세다. 더욱이 자칫 광주 전략공천이 당내 분열을 이끌어 수도권 선거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가 현실 정치인으로서 전략공천이라는 실리를 추구할지 아니면 경선이란 명분을 추구할지 시한대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남지역 경선 일정과 장소 운대 광주시장과 이응섭 의원의 ‘30일까지 경선을 확정’ 요구에 대한 대답 차원으로 더 이상 결정을 미룰 경우 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Mercedes-Benz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4년 5월호

4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저항에서 창조로

5·18 34주년 기념 특집
'오월문화' 30년의 궤적과 전망

“분노와 슬픔이 잉태한 오월의 문학, 미술, 연극 치유와 창조의 에너지로 퍼져라”
'광주정신' 따라 오월길을 걷자
'임을 위한 행진곡' 편지를 걸어서

우리 땅 속살 여행 -고창
보리밭이 부르는 풍경의 절창
“싱그런 봄이 여기 있구나”
스타 데이트
아이돌 선입견 깨고 경호원 변신
'쓰리데이즈' 한태경 역 배우 박유천

오월문화 저항에서 창조로
꽃밭한 자존심의 천년목사골
꼭 쓰는 흥어맛, 잊을수 없네

예향초대석
농부 철학자 윤구병
땅과 사람의 가치 일구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달의아티스트
광주의 서사에 음악의 날개 달아온
작곡가 김현옥의
작업공간과 작곡이야기

기획
남자, 요리에 빠지다
'요리하는 남자' 열풍 진단
매력 셰프들의 베스트 레시피 소개

마주앉은 책과 삶
“정도전 같은 선각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운 해석과 참신한 글로 주목받는
역사학자 이덕일에 대해 지양분이 된 책들

신성 기획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봐-
국내외현장을 가다①
부산 감천마을
‘달동네 미술프로젝트’
아트 인 리빙 공예가 김상미씨에게 배우는
컨츄리 인형과 빈티지 페인팅의 매력

문화공간
절집에 민문학, 더 굿네
문화와 사람 향해
열린 사찰, 무각사